

광주시교육청, 2019학년도

제2기 꿈꾸는 공작소 운영

오늘 개강...40개 프로그램 1014명 참여

광주시교육청이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주간 교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2019학년도 제2기 '꿈꾸는 공작소'를 운영한다.

'꿈꾸는 공작소'는 1기 운영 때 95%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관내 1-2학년 고등학생들이 직접 해당 대학을 방문하여 전공 교수에게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강의 듣는 융·복합형 강좌로서 교교-대학 연계 맞춤형 진학 설계 프로그램이다.

특히 학생부종합 전형을 비롯한 수시 모집에 대비하여 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 '진로활동'에 기록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 이수 기준은 별도의 평가

없이 70%(11시간) 이상 출석하면 이수 처리한다.

총 1412명의 학생들이 신청을 하여 1014명의 학생이 선정 되었으며 인기 강좌로는 1위 '경찰 물리력 사고 한계(조선대)' 30명 모집에 103명 신청(3.4:1), 2위 '생활 속의 물리 속속(전남대)' 30명 모집에 97명 신청(3.2:1), 3위 '간호사 어디까지 알고 있니?(호남대)' 20명 모집에 67명 신청(3.3:1)하여 경쟁률이 치열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별도의 추천위원을 선정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명단을 선정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과 개설 강좌수는 광주교대 2개, 광주대 5개, 광주여대 4개, 남부대 2개, 등

신대 4개, 광주보건대 3개, 전남대 5개, 조선대 5개, 한국폴리텍광주캠퍼스 5개, 호남대 5개 강좌로 모두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시교육청 우재학 중등교육과장은 " '꿈꾸는 공작소'가 학생들의 진로·진학 설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해마다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내년에는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개설해 학생들이 더욱 다양한 강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꿈꾸는 공작소' 운영이 끝나면 그 활동 결과를 수강 학생들의 학교에 안내해 진학 상담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궁금한 내용은 광주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진학팀 ☎ 062-380-45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인호 기자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교원 마음치유 직무 연수 개최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18일과 19일 전체교원 대상으로 광주교육지원센터 및 비바 마을목공소 맵글라우 등에서 하반기 교원 마음치유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교원접해나 갈등관계, 교직 스트레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의 심리·정서적 돌봄 지원을 위해 '공동과정'과

'선택과정'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공동과정은 굿네이버스 전요섭 팀장의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법', 이레네메모리얼 가족상담센터 이동천소장의 '학부모와 소통을 통한 마음돌보기'라는 주제 강의로 진행되어 다양한 아동학대 및 교원접해 사례에 대응하

는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선택과정으로 아로마, 목공예, 가죽공예, 원예 체험 등 다양한 체험·실습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교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이끌어가는 힘을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였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 민주시민교육지원과 오주봉 과장은 교원의 관계 회복 및 상황 대처 능력 함양을 통해 다양한 요구를 가진 학생, 학부모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교원 마음치유 직무연수 외에도 11월 1일~2일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치유와 성장을 위한 감성여행' 교원치유 캠프 연수를 운영할 계획이다.

담양교육지원청, 유·초·중 교(원)감 역량 강화 연찬회

담양교육지원청은 지난 17일 담양 유·초·중 교(원)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찬회를 담양 리조트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담양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활동에 대한 안내와 함께 내년도 담양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올해 사업 분석을 통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자유로운 토론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다양한 교육지원활동을 파악하고 있는 교(원)감의 담양교육

사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대변하는 적극적인 전문적학습 공동체의 장이 펼쳐졌다.

교(원)감으로서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활동을 공유하고 협의하며 공급한 점을 해결하고, 담양교육의 사업을 확대, 유지, 축소, 폐지사업으로 나누어보며 소수 모듬별 활동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학생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예 직업에 대한 이해와 실제를 주제로 강의 및 실습을 통해 체험해 보

는 기회를 가졌다.

이정희 교육장은 "내년도 담양교육계획 수립 시 학교구성원 등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에서도 학교구성원의 민주적인 협의 속에서 교육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이를 위해 교(원)감으로서 선생님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며 교육지원청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도산초, 학생 휴식공간

'무지개 꿈마루' 조성

도산초등학교는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아 학생 휴식공간인 '무지개 꿈마루'를 조성하였다.

'무지개 꿈마루'는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공인 혁신의 일환으로 진행한 '휴마루' 사업으로 올해 초 시작하여 여름방학 동안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본관 3층에 조성된 '무지개 꿈마루'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학생, 교직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설문을 실시하였고 학생 대표들과 협의회를 통하여 직접 공간을 디자인하였다.

보드게임, 레고, 자유로운 그림 및 쓰기 활동 공간부터 독서 활동 공간, 친교 공간 등으로 구성된 '무지개 꿈마루'는 학생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다.

조인호 기자



전남교육청, 학교 정보보호업무 컨설팅 강화

전남도교육청이 17일~18일 이틀 동안 목포신안비치호텔에서 전남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전산업무 담당자 73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IT 신기술과 미래형 학내망 네트워크 설계,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는 국가 정보원의 사이버보안 활동 사례 소개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정보화사업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실무도 다뤄졌다.

특히, 연수 2일차에는 학교 정보보호업무 경감을 위한 컨설팅 강

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펼쳐져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자리에서는 학교 정보보안 감사에 대한 교육지원청 간 정보 공유, 정보화지원센터 운영 성과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활동사례 발표 등이 이뤄졌다.

김평훈 행정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연수에서 습득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향상시켜 교육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업무 담당자들의 노력과 상호 지속적인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순교육지원청, '문화예술공감' 길거리 공연 개최



화순교육지원청은 9월 1차 공연에 이어 지난 17일 '문화예술공감' 2차 길거리 공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화순이양고, 능주고, 아토포(화순교육지원청 지정 마을학교), 지오학교 4팀 8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거리에서 자신만의 고운

꿈들을 버스킹을 통해 펼쳤다.

첫 무대에 선 화순이양고 자율 동아리 5명의 학생들은 곡이 끝날 때마다 한 마디 한 마디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며 무대에 선 소감을 청중들에게 전달하였다.

공연은 능주고 밴드, 아토포 밴드, 능주고 관현악팀으로 이어졌고 마지막 지오학교의 엘토 색소폰 앙상블팀의 울림은 거리를 가득 채웠다. 1차에 이어 2차 공연에서도 화순경찰서의 학생안전, 교통정리 지원으로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이번 공연에 참가한 능주고 허

인재 학생은 "저는 공부에 열중하면서도 동아리나 방과후 활동을 통해 음악을 접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임시를 준비하면서도 자기의 소질을 함께 개발하는 것이 이상적인 청소년의 모습 아닐까요"라는 소감을 밝혔다.

화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다음 3차 길거리 공연은 수능 후 수험생을 비롯한 학생들의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 14일에 실시한다고 전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